

# “3·1 만세운동으로 선열 숭고한 뜻 되새긴다”

### 수피아여고 등서 만세운동 재현 광주3·1운동 기념회, 10일 개최 1천여명 참가 독립정신 되살려 “호남 만세운동, 광주정신 지주”

1919년 3월 10일. 당시 본정통이라고 불렀던 광주천변 장터(현 충장로)에 1000여명의 시위대가 몰려 들었다. 앞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발화돼 전국으로 확산됐던 3·1 만세운동이 광주에서도 번진 것이었다. 총장으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불렀던 이날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양림동에 거주하던 기독교인과 기독교계 학교였던 지금의 송일고와 수피아여고 학생들이었다. 현재 서석초등학교의 전신인 광주보통학교 졸업생과 지금의 자연과학고 전신인 광주 농업학교 졸업생들인 20대 전후의 지역 지식인도 행렬에 동참했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당시 상황을 “그때 수피아 여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 수가 30여명인데 전원이 참여했고 30여명 중에 20여명이나 재판을 받았다”고 말한다. 특히 당시 수피아 2학년이 재학 중이던 윤형숙은 수피아에서 광주우체국 앞까지 만세운동을 벌이다 출동했던 일본 기마병이 내리친 칼에 왼팔이 잘렸다고 한다. 왼팔이 잘리자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들고 또 만세를 부르다가 결국 체포된 그는 재판장에서 일본 재판관이 이름을 묻자 ‘나는 피 흘리는 계집 윤희녀’라고 답했다고 한다. 왼팔이 잘리면서도 태극기를 들었던 윤형숙 열사는 ‘제2의 유관순’, ‘남도의 유관순’이었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3·1만세운동 제104주년을 기념하고 광주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광주3·10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 수피아 여고와 3·1만세운동길,

부동교(옛 작은 장터)에서 개최된다. 광주3·10독립 만세운동은 10년 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됐던 광주의 자랑스런 역사였다. 당시 인구가 1만여명에 불과했던 광주에서는 3·1 만세 시위에 1000여명이 참여했고, 수백명이 체포돼 104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송일학교 학생 24명과 수피아 학생 20명, 농업학교 6명, 보통학교 학생도 포함됐다. 양림동은 호남 만세운동의 교두보이면서 발상지인 셈이다.

광주3·1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기념행사와 더불어 시민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만세행진이 열린다. 문화행사로는 수피아 여고 학생회에서 준비한 만세열기 퍼포먼스와 양림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거리극 ‘3·1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어 (120년전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 이야기)’가 마련된다. 수피아 여학교에서는 1919년 3월10일 광주만세운동의 맨 앞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다 일본헌병에게 왼팔이 잘려나간 당시 수피아여학교 윤형숙 열사의 후손에게 수피아 여학교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

120년 역사의 양림동을 지탱해 온 수피아 여학교는 당시 만세운동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23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를 당하는 아픔

을 겪은 학교로서 이 기념행사를 통해 선배이자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만세행진은 대형 태극기를 필두로 시민, 학생들이 당시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수피아여고 만세운동 기념동상 앞에서 출발해 거사 5일전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광주 만세운동의 발상지 남궁혁 장로의 자택을 지나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가담해 25명이 투옥된 독립운동의 산실 옛 송일학교 터와 양림동의 상징적인 양림오거리, 양림교와 천변으로, 부동교까지 이어진다.

부동교에서는 천변을 뒤덮은 태극기 퍼포먼스와 만세삼창, ‘우리의 다짐’을 통해 부동교 아래에서 처형된 기삼연 장군,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된 심남일 장군을 비롯한 40여명의 호남의병장들, 김복현 선생을 비롯한 양림동의 기독교인들과 학생독립군들의 정신을 되새길 계획이다.

광주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이상희 상임대표는 “양림동은 호남 만세운동의 교두보이자 발상지로서, 민족자존의 자주독립을 외친 항쟁지이면서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광주정신의 지주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되새기며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광주 빵집 ‘빵과장미’, 여성의 날 기념행사 ‘눈길’

### 서수민 대표 3년째 행진 진행 1908년 여성참정권 구호 기원

광주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베이커리 ‘빵과장미’는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치며 참정권과 근무환경을 요구한 시위에서 따온 이름이다. 태생적(?) 기원 때문일까. 세계 여성의날인 매년 3월8일이 되면 서수민 ‘빵과장미’ 대표는 ‘여성’을 외치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다.

서씨는 8일 올해 여성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6시부터 30분간 드레스코드 ‘장미’에 맞춰 입고 20여명의 참가자와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지는 충장로 일대를 행진한 것. 올해 주요하게 낸 목소리는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도 잠잠해져 행사 규모를 더 키웠다. 오는 11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정해 ‘저항과 돌봄: 여성의 언어로 다시 쓰는 자본주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11일)을 연다. 다른 단체들과 연대 이벤트도 준비했다. 충

장로 ‘광주 삼합’이라 불리는 독립서점 ‘소년의 서’와 광주극장에서 11일까지 각각 방문 도장을 받으면 장미 또는 1000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빵집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해 서씨는 “우리 가게에서 ‘빵과장미’라는 구호로 빵을 만들고 판매하니까, 여성의날에 무언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 나선다면 달라진 나를 만나고 작은 해방감을 실현하는 데 도움



베이커리 ‘빵과장미’를 운영하고 있는 서수민 씨. 이학영 사진작가 제공

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여성 권리가 많이 향상됐다고들 말한다. 오히려 여성으로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수치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통계가 있다. 객관적 지표가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최소한의 공유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베이커리 ‘빵과장미’는 여성의 목소리만 내는 빵집은 아니다. 비건을 지향하기 위해 동물성 원료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 발효 빵을 만든다. ‘빵과장미’가 정한 세계 여성의날 기념주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 ‘Bread N Rose’를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 곡성군 ‘왕열 한국화 작가 초대전’ 마련

### 내달 19일까지 갤러리107

곡성군은 9일부터 4월19일까지 갤러리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왕열 한국화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섬진강과 이상향인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작가만의 시적 감성으로 바라 본 수묵채색화 대작 25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독, 동행, 행복 등 다양한 희로애락의 삶을 무릉도원의 새와 말의 형상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곡성군 갤러리 107은 곡성을 중앙로 107-1에 위치해 있다. 무료관람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관 없이 운영된다.

왕열 작가는 “동양정신의 개념을 오늘날 시대에 맞춰 어떻게 수용할 지를 생각하고 이를 작품 세계 근본으로 삼고자 했다”며 “작품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백 공간에 감성이 충만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왕열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미술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66회 개인전과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한국미술작가 대상·한국미술 평론가협회 작가상을 수상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

### 광주신세계 1층 킷처스퀘어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운영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이 오픈했다.

(재)광주비엔날레와 (주)광주신세계는 8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백화점 1층 킷처스퀘어에서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광주비엔날레 이사진, 미래혁신위원회 위원, 지역 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사전 축하 공연에 이어 개최선언, 문화경제부시장의 축사와 대표이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입장권 전달식과 성공 개최를 다지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관람도 이어졌다. 이날 입장권 전달식 주인공은 지난달 28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서포터즈다.

김광진 부시장은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 속 광주의 문을 완전히 열어 광주가 광주답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광주의 멋과 맛, 의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이번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여느 때보다 최장 기간 동안 다채로운 광주의 장소에서 전시가 펼쳐지면서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신세계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조성한 홍보관은 이날부터 4월6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홍보관은 본전시와 파빌리온 소개, 이벤트존, 홍보영상존 등으로 구성됐다. 홍보영상존에서는 역대 광주비엔날레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소개 영상 등이 상영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 본전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